

세상을 보는 바른 눈

WORLDVIEW

2011

8

Cover Story

국제기독교대학학술대회

Worldview Column

우리에게 아브라함 카이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반값등록금' 추진의 선행조건
모성적 영성에 마음을 담그다
서평 : 다중격변창조론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HRISTIAN WORLDVIEW STUDIES ASSOCIATION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연회의 시작 - 엘타워

호텔 가격의 거품은 걸러내고 품격만을 남겼습니다

세계 일류 기업들의 선택으로 더욱 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엘타워에서 국내 최고의 연회를 경험하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닛산, 인텔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성공 비즈니스의 무대로 **엘타워**를 선택했습니다.



닛산 / 그랜드홀



마이크로소프트 / 그랜드홀



2010 SFAA 서울 컬렉션 / 그랜드홀



인텔 / 메리골드홀



- 10개의 대·중·소 연회홀을 갖추고 있어 패션쇼, 자동차 런칭쇼, 스포츠파티, 세미나, 국제회의 등 다양한 연회가 가능합니다.
- 특별하고 기품 있는 행사를 완성하는 EL Tower 연회 프리미엄을 느껴보십시오.

예약·문의 02-526-8600 ~ 4 | 양재역 7번출구 바로 앞 위치

세상을 보는 바른 눈

WORLDVIEW

발행인

손봉호

편집인

김승욱

편집

차명실

기자

임지연

편집위원

강진구, 권성윤, 권오병, 김승태

김원수, 김정일, 김중락, 박동열

성백영, 이승구, 유해신, 장갑덕

최태연, 한윤식

자문위원

유진희, 정중모, 김도태

교정 자문

임춘택

자문봉사(녹취, 교정)

김하영, 김아리나

제작

한국학술정보

2011년 8월호

월간 WORLDVIEW 통권 134호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02-754-8004

E-mail

(사무국) info@worldview.or.kr

(학회)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facebook.com/cworldview



표지인물_두안 리트핀

미국 위튼대학교 전 총장으로

국제기독교대학학술대회 기조

강연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CONTENTS 2011.8

COVER STORY

04 국제기독교대학 학술대회

06 기조강연 요약문(1)_기독교대학의 사회적 책임

09 기조강연 요약문(2)_그리스도 중심의 대학 교육: 그 의미와 실천

12 150년 역사를 지닌 기독교 명문사학_휘튼대학

14 인터뷰_두안 리트핀 휘튼대학 전 총장

WORLDVIEW COLUMN

20 우리에게 아브라함 카이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1) 이승구

24 독일사에서 읽는 한국교회
오판에서 속죄로 돌아서라 추태화

27 캐나다 기독교세계관대학원과 함께하는
창조세계의 길을 따라서 이흥남

30 '반값 등록금'추진의 선행조건 김태황

WORLDVIEW CULTURE

33 김명엽의 찬송교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김명엽

34 십자가 만들기 윤성진

WORLDVIEW MEDIA

38 모성적 영성에 마음을 담그다 강진구

BOOK REVIEW

42 『다중격변 창조론』 최태연

WORLDVIEW NEWS

46 활동보고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한 실천을 진작시 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국내외 기독교학자들과 기독교대학 교류의 장 국제기독교대학학술대회

◎ 편집부

국제기독교대학학술대회는 2001년에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대학인 캘빈대학(Calvin College, Grand Rapids, MI)의 교수개발프로그램인 카이퍼 세미나(Kuiper Seminar)를 국내에 도입하여 한국 기독교대학 교수와 크리스천 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Calvin College의 강사지원과 고신대학교, 백석대학교, 한동대학교 등의 기독교대학들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연합활동으로 시작되었다.

제1회는 한동대학교 주관으로 “God’s Calling to Academic Work”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서울, 7.23~25, 2002), 제2회는 백석대학교 주관으로 “기독교인의 책임과 교육과정 개발”(천안, 12.14~16, 2004), 제3회는 고신대학교 주관으로 “21세기 기독교 고등교육의 역할과 도전”(부산, 6.19~21, 2006)의 주제로 개최되었

으며 캘빈대 교수와 외국의 석학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교수개발 세미나 형식(Faculty Enrichment Program)으로 진행되었다.

한동대학교 주관으로 “기독교대학교육 및 기독교문의 토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던 제4회 대회(경주, 6.15~16, 2009) 이후로는 대회의 명칭을 국제기독교대학학술대회(IC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and Christian Scholarship)로 변경되었으며 학술대회의 형식을 도입하여 현재 기독교대학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독교적 연구와 교육의 성과를 나누었고 또한 교수개발세미나 강사도 캘빈대학을 비롯하여 유럽, 북미, 한국의 저명한 학자들의 초청하여 학술대회가 강사 및 강좌(Speakers & Lectures)와 논문발표 및 토론(Papers & Discussion) 형식으로 진



행되었다. 제5회 대회(부여, 6.22~24, 2011)는 백석대학교 주관으로 “기독교대학의 사회적 책임”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앞으로 기독교학문과 교육을 추구하는 더 많은 국내 기독교대학들과 연합하여 학술대회를 운영하고 국내외 기독교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진정한 기독교적 대학교육에 대한 기대를 기독교대학들이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제5회 대회의 성과를 돌아보면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강화와 기독교학문 추구의 성과를 발표하며 국내외 기독교학문의 성과를 논의하고 국내외의 기독교자들 간의 교류 증진 및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기독교 정체성의 회복에 열심이 있는 대학의 연합과 협력, 교류를 도모할 수 있었으며 국내의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학문 운동 기관과의 연대하는 기회가 되었다. 다음 학술대회는 2013년 고신대학교 주관으로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연도	주관대학	공동주관대학	주 제
1회 2002	한동대	백석대, 고신대, Calvin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학문의 수행
2회 2004	백석대	고신대, 한동대, Calvin대	기독교인의 책임과 교육과정 개발
3회 2006	고신대	백석대, 한동대, Calvin대	21세기 기독교 고등교육의 역할과 도전
4회 2009	한동대	고신대, 백석대, Calvin대 (공동주최: 나사렛대, 평택대, 서울아대)	기독교대학교육 및 기독교학문의 토대
5회 2011	백석대	고신대, 한동대 (공동주최: 강남대)	기독교대학의 사회적 책임
6회 2013	고신대 (개최 예정)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복음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갖는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 복음을 선포할 수 없으나 우리의 행위는 우리를 주시하는 세상 앞에서 복음을 몸으로 구현하고 실현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나 연약함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힘은 본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 증언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명확한 진리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복음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복음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방법과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수 있다.

복음은 말이 아닌 실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말로 나타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방법 속에서 복음을 보여주도록 자신들의 백성을 부르신다. 따라서 그리스도 교회의 사명은 우리의 말과 행위 모두에 있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 복음을 선포할 수 없으나 우리의 행위들은 우리를 주시하는 세상 앞에서 복음을 몸으로 구현하고 실현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말로 표현함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복음은 불가피하게 우리의 행동과 연관된다. 복음은 전해지는 것뿐 아니라 실천되어야 한다. 복음은 우리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만 하고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모든 행동들은 그러한 복음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구현되어야 하며 먼저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점차 영역을 넓혀 우리의 사회적 의무의 첫 번째 범주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가족들에게 실지로 믿음의 행위를 보이며 믿는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사회전반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세계에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를 향한 교회의 이중적인 의무는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며 복음에 따라 행동하며 사는 것이다.

기독교교대학의 주된 임무는 학생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대학이 설립된 이유이고, 이것이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기독교대학을 필요로 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기독교대학은 교회가 아니다

기독교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논할 때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독교대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의 소명과 기독교 대학의 소명은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똑같은 것은 아니다. 기독교대학은 학문을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의 소명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소명보다 훨씬 더 집약적이다. 기독교 대학은 또한 구호단체나 사회봉사 단체, 또는 선교단체도 아니다. 기독교대학의 일차적인 소명은 복음전도에 종사하거나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거나, 병든 자를 치료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자연재해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대학의 주된 임무는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대학이 설립된 이유이고, 이것이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기독교대학을 필요로 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기독교대학에 속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기독교대학의 주요한 소명이다. 그리고 기독교대학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일차적인 방법은 기독교대학이 길러낸 학생들을 통해서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의 교육적 과제에는 포괄적인 소명의 모든 영역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일이 포함되며 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실제 현실세계에서 직면하게 될 모든 부문과 관련해 교육시켜야 한다. 따라서 실제 현실세계

의 사안들을 기독교대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의 중추되는 소명은 학생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통해 기독교대학은 세상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을 위해 세상에 나아가 사회 모든 방면에서 말과 행위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점점 급증하는 졸업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들 졸업생들은 각자 자신의 소명에 따라 가능한 모든 곳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정의를 위해 일할 것이다. 그들은 국내에서나 외국에서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들은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것이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것이다. 그들은 공동체와 국가의 지도자들이 되어 힘 있는 자리에서 빼어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신실한 일꾼이 될 것이고 사랑스런 이웃이 되고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보내신 어느 곳에서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완수하도록 그들을 잘 준비시키는 것이 주요한 '기독교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다.



두안 리프틴 휘튼대학교 7대 총장으로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7년 동안 재임하였다. 그는 저서 *Conceiving the Christian College*(2004)에서 기독교대학이 지녀야 할 독특한 특징들에 대해 다루면서 기독교대학의 정체성과 기독교 사상의 근본원리 등에 대해 논하는 가운데 보다 기독교대학이 보다 쾌적한 학문과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국제 기독교대학 학술대회 기초강연 요약문 2

그리스도 중심의 대학 교육: 그 의미와 실천

두안 리트핀

오늘날 미국의 많은 기독교대학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대학교육을 외면함으로 그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기독교대학의 대의명분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 중심의 대학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기독교대학의 사명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어떠한 것도 없다. 기독교대학은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기관이 되기를 열망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남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이란 특징적으로 그리스도에 중심을 두는 교육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는 어떠한 것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로 상정하고 있다.

기독교대학의 임무는 단순히 선교를 위한 훈련에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학생들이 인간 경험과 학습의 온갖 다양한 범주에 이르는 모든 지식분야를 접하게 하면서 그러한 지식들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질서와 인간들이 그 질서에 대하여 발견

하고 말하여 온 것들 중 가장 최상의 것들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그리스도중심에 초점을 두는 것에 어떠한 제한이나 한계가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이해의 범주를 대속과 구원에 한정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대학교육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왜소한 기독교론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The Lord)'되심을 선포하면서 그 분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는 자(The Sustainer)'이신 동시에 모든 만물의 '목적지(The Goal)'이시고 모든 만물의 '구세주(The Redeemer)'이시다. 그리스도는 또한 모든 만물의 '심판자(The Judge)'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한 로고스이며 우주의 중심 원리이자 주체이시다. 모든 생명과 빛은 그것의 근원지가 무엇 이든 간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지성은 그 근원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분의 제국이나 왕국에서 모든 권위와 생명,

지혜 그리고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다(엡 1:10)”.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역은 모든 이야기의 결정적인 사건이며 역사의 중심점이고 창조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들이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중심에서 계시다.

따라서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이란 기독교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기독교세계관이 깊숙한 곳 까지 배어있는 교과목과 교육과정을 특징으로 하면서 그리스도 없이는 어떠한 사실이나 이론, 주제들도 온전히 이해하거나 그 진가를 알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스도 중심이란 우리의 생각이 뚜렷하게 기독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과 학문에서 예수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교육과정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학문의 구석구석에 이르기 까지 생각하면서 체계적으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이러한 질문에 해답을 찾으려는 일이 우리가 유일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대학은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기관이 되기를 열망해야 한다. 모든 기독교대학들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기를 열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명명한 ‘우산모델(umbrella model)’을 따라 설계된 기독교대학들이 이에 해당한다.

우산모델 기독교대학은 기독교 우산이나 덮개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무성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한다. 기독교적 사고에 적대적인 많은 세속적인 환경들과는 달리 우산 모델 기독교대학들은 기독교 사고에 적합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낸다. 우

산모델을 따르는 기관들 내에서 우리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자인하는 교수들을 통해 참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이 행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교수들에게서 그러한 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그 기관 전체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 중심의 학습을 찾아볼 수 있으나 그 기관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므로 ‘체계적 모델(The Systemic Model)’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에 대한 포부를 기대할 수 없다.

‘체계적 모델’의 기독교대학들은 기독교적 사고를 학교 교육과정을 포함 학교 전체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체계화시키려 한다. 그들은 기독교 전통을 지지하는 어떤 특정한 지적 입장에서 모든 생각들을 연관시켜 보려고 한다. 우산모델 내에서는 일정한 구성원들에게만 진리인 것이 체계적 모델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진리인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처럼 살며 사역하려고 한다.

체계적모델 기독교대학과 우산모델 기독교대학의 구별은 지지하는 신앙적 전통의 폭이 넓던지 협소하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 기관에 속한 모든 교수진들이 그 기관이 지지하는 신앙 전통을 구현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있다. 나는 체계적모델 기독교대학이 그리스도중심이 되기를 열망하는 것이라 본다. 체계적모델을 따라 설계된 기독교대학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중심에 초점을 맞춘 교육기관이 어떠한지를 입증해 보이기를 기대한다.

그리스도 중심의 대학교육기관이 되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계속 남아있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은 어떠한 것도 없

그리스도 중심이란 우리의 생각이 뚜렷하게 기독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과 학문에서 예수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으려 해야 한다.

으며 그 분이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인식하에 우리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통해 성숙해가는 삶을 영위해야 한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의 사명을 스스로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대학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행정부서와 직원들이 그리고 교수진들이 확고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비전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삶과 사역에서 그 비전을 실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기독교대학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비전을 명확히 밝히고 남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내 경우 18년 전에 새로운 대학 총장으로 임명되어 오게 된 휘튼대학에서 나는 그 대학의 이사회와 전임 총장님들 그리고 우리학교 교수진 가운데 철학자 아더 홈즈나 역사학자 마크 놀 같은 훌륭한 학문적 귀감이 되는 분들을 통해 이러한 강력한 비전에 숙달되어 있는 캠퍼스를 영예스럽게 물려 받았다. 이것은 기독교 대학교육 기관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중심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교육과정을 통해 그것을 나타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제공하

는 교육에 단지 기독교 신앙을 덧입히거나 겉치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그 핵심에 두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기독교대학들은 신앙과 학문을 진정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비전을 학교 내에서의 모든 활동과 대인 관계 뿐만 아니라 업무에서도 보여주어야 하며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를 실천하고 대외적인 업무와 만남 속에서도 나타내야 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의 모든 생활이 포함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 비전을 실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가로막는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종교다원주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대학을 실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온전히 기독교대학을 실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사악함 뿐만 아니라 ‘세상, 육체, 그리고 악한 것들’과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중심의 대학교육이라는 주어진 사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두안 리프트 휘튼대학교 7대 총장으로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7년 동안 재임하였다. 그는 저서 *Conceiving the Christian College*(2004)에서 기독교대학이 지녀야 할 독특한 특징들에 대해 다루면서 기독교대학의 정체성과 기독교 사상의 근본원리 등에 대해 논하는 가운데 보다 기독교대학이 보다 쾌적한 학문과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150년의 역사를 지닌 기독교 명문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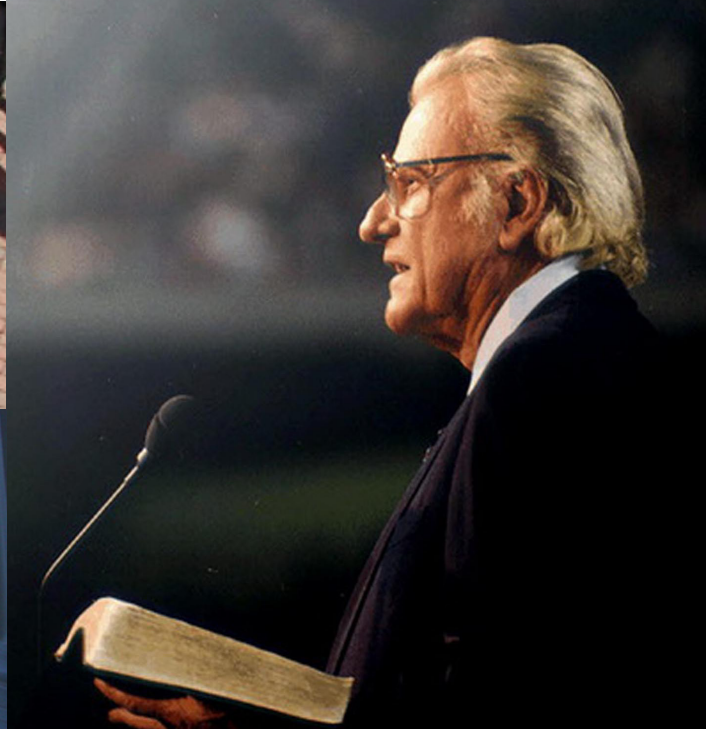
휘튼대학(Wheaton College)

🔗 편집부

일리노이주 위튼(시카고에서 서쪽으로 40km)에 위치한 휘튼대학(Wheaton College)은 1860년에 설립되어 1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은혜의 공동체(Community of Grace)임을 표방한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엄격하게 추구하고 있는 기독교 인문대학(Christian liberal arts college)으로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교육을 다방면으로 시행하여 그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프린스턴 리뷰(The Princeton Review)가 발표한 전국 최우수 373개 대학(The Best 373 Colleges) 2011년도 판에 휘튼대학이 포함되어 있다.

등록금에 비해 학문의 질이 뛰어난 대학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휘튼대학은 기독교 신앙으로 삶을 변화시키며 환경친화적이고 자연녹지를 잘 보존하는 대학으로 정평이 나있다. 대학 재학생이 2,400명이고 대학원생이 500명이며 남녀 학생비율이 50대 50이며 미국 전역(50개 모든 주)과 세계 50여 나라에서 온 다양한 교단과 종파에 속한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그리스도 중심의 대학교육을 통해 전인적인 우수한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하여 교회를 형성하고 사회 전반을 개선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휘튼대학의 교훈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For Christ and His Kingdom)'이다.



휘튼대학의 교육목적은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다”는 원리를 가지고 신앙과 학문을 결합하여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빌리 그래험(Billy Graham) 목사의 출신학교로도 유명한 휘튼대학은 노예폐지 운동부터 빌리 그래험의 신앙부흥운동에 이르기까지 150년 동안 학문과 문화 활동에 역동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으며 정치, 교육, 경제, 예술, 스포츠 및 종교 분야에 많은 동문들이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휘튼대학은 미국의 인문대학 가운데 숫자적으로 6번째로 많은 교육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참조: <http://www.wheaton.edu>

[http://en.wikipedia.org/wiki/Wheaton_College_\(Illinois\)](http://en.wikipedia.org/wiki/Wheaton_College_(Illinois))



COVER STORY



두안 리트핀(Duane Litfin) 전 휘튼대학 총장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부어 룯데리조트에서 제5회 국제기독교대학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고신대학교, 백석대학교, 한동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2년에 한 번씩 주관을 하여 개최하고 있다. 초기에는 미국의 칼빈대학(Calvin College)과 함께 공동 주최하였으나 올해는 휘튼대학(Wheaton College)의 리트핀(Litfin) 전 총장을 주강사로 초청하고, 영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기독교학자들을 초청했다. 본지에서는 김승욱 실행위원장이 리트핀총장을 만나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세계관 운동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㉓ 인터뷰 김승욱(편집장)

기조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강연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의 세 가지 기능인 연구, 교육, 사회 봉사 중에 대부분 명문 대학들은 '연구'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총장님께서서는 기독교대학의 우선 목적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가 아니라,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연구보다는 교육에 전력해야 한다면 한국의 경우 대학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거나 명성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문 분야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역사학의 경우 교육에 초점을 맞춘 기독교대학에서도 유명한 교수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휘튼대학의 경우 마크 놀 (Mark Noll)¹⁾ 교수의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역사학교수입니다. 반면에 물리학 같은 분야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 분야의 경우 소요연구비의 규모에 따라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연구비가 많이 소요되는 거대과학(big science)은 대규모 연구비를 받아야 연구가 가능하므로, 기독교대학에서 이러한 분야는 아

마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에 연구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는 소형과학(small science)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물학의 경우에, - 물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분야도 있겠지만 -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태학의 경우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중요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주변에 호수가 있으면 호수의 수질 개선을 위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매우 유용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든다면 경제학도 기독교 학자가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기독교경제학이라는 분야의 논문을 통해서 학술지에 기고를 할 수도 있고, 특히 크리스천 청중을 위해서 학술적으로 논리 정연한 강연도 가능합니다. 물론 학술적 논문발표 외에는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대규모의 연구중심대학에서는 인정받기 어렵겠지만 크리스천들의 모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크리스천이 기여할 수 있는 학문분야를 잘 선정한다면 기독교

1) 저서로는 기독교인들의 반지성주의를 다룬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Mind/MP), 『미국과 캐나다 기독교 역사』(CLC), 『포스트모던 세계에서의 기독교 신학과 신앙』(공저, 엠마오), 『타닝 포인트』(CUP), 『미국의 신: 조너선 에드워즈부터 에이브러햄 링컨까지』(America's God: From Jonathan Edwards to Abraham Lincoln), 『종교개혁은 지나갔는가? 현대 로마 가톨릭 사상에 대한 복음주의적인 해석』(Is the Reformation Over? An Evangelical Assessment of Contemporary Roman Catholicism, 공저) 등이 있다.

대학도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기여를 할 수 있고,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휘튼대학은 미국에서 대학 랭킹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휘튼대학은 미국 대학 랭킹에서 매우 높은 대학 중의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120개 정도 되는 미국의 기독교대학 중에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기독교대학들은 대학 주변 지역의 학생들이 옵니다. 칼빈대학의 경우 휘튼에 비해서 지역대학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특히 네덜란드 개혁주의 교단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휘튼대학은 모든 복음주의 교단에서 고르게 진학하는 초교파적인 대학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주의 대학이지요. 그러면서도 매년 대학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휘튼대학이 정말 기독교대학이나, 빌리 그레햄이 졸업한 대학이 맞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도 치릅니다. 우리는 교수를 뽑을 때 학문적인 성취를 우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가? 기독교인임을 선언하는데 주저함이 없는가?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신앙과 학문의 통합도 강조합니다. 칼빈대학은 입학은 쉬운데 졸업하기 어려운 대학입니다.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양육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휘튼대학은 규모가 작아서 칼빈대학처럼 많은 학생을 뽑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자 수는 칼빈대학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휘튼대학이 더 선별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서는 기독교대학은 교회가 아니므로 전도나 선교가 아니라 기독교적 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대학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일차적인 방법은 졸업생들을 통해서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최근에 제3세계에 선교의 일환으로 기독교학교 설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교목적으로 세워진 기독교대학에서도 직접적인 선교보다 기독교대학을 지향해야 하는가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이 세운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이 세속화되었듯이, 제3세계의 기독교대학들도 역시 세속화의 길을 걷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학으로써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우리 휘튼대학도 아프리카의 케냐 등에 분교를 세웠습니다. 그러한 학교들은 교회가 아니라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기독교 대학의 임무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인문대학(Christian liberal art college)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생물학, 경제학, 철학, 역사학을 가르칠 때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기독교대학에서 교육보다는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기독교 대학이 세속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세속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교실에서 가르치는 과목과 커리큘럼 가운데 그리스도의 중심사상이 없기 때문에 세속화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경제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대학은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사상이 각 학문분야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세속화되는 이유는 학교 행정 시스템에 기독교 정신이 사라지고, 각 교수가 가르치고 연구하는 내용에 그리스도 중심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휘튼대학은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수들에게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교수 선발, 교수 교육 등의 과정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튼대학은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수 채용 단계부터 교수 교육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원로교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앙과 학문을 통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원로(senior) 교수를 유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휘튼 대학의 경우 마크 놀 교수가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는 휘튼에서 학부과정을 마치고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성경지식과 학문이 특출했습니다. 이러한 통합능력이 뛰어난 학자가 역사학과에 있었기 때문에 젊은 교수들의 멘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수를 채용할 때 신앙과 학문의 통합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명문대학을 나오고 학문수준은 탁월하더라도 성경지식은 주일학교 수준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학자를 선발하면 안 됩니다. 또한 교수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휘튼대학에서는 교수를 선발할 때 자신의 학문영역에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통합했는가에 대한 에세이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그리고 종신직 심사과정(tenure track)에 있는 교수들에게는 2년 후, 5년 후에 각각 평가가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7년째에 학과장의 감독하에 엄격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평가는 학술지에 발표 가능할 정도여야 합니다. 종신직을 받은 후에도 종신직 평가(post tenure review)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합니다.

휘튼대학에서 지난 17년 동안 총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학교를 이끌어가는 방향은 어떤 것이었으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

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학운영을 위해서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출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대학을 운영한다는 것은 학생선발, 교수 선발 및 지원, 학사행정, 커리큘럼, 도서관이나 연구 시설, 심지어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다양한 측면에서 모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총장으로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역시 후원금 모금이었습니다. 기독교대학도 재정이 튼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기독교대학이라면 신앙과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른 기독교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후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젊은 교수들에게 신앙과 학문을 통합시키기 위한 교육을 시키고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신입 교수들에게 강의부담을 한 과목씩 덜어주고 그 시간에 통합을 위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 5백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매년 25만 달러를 이러한 세미나 및 통합 교육에 투자했지요.

제가 두 번째 기조강연에서 맥스 드프리(Max DePree)의 “예측불허 차단(interception of entropy)”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지도자는 조직체에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비전을 제시하여 예측불허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차단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7년간의 총장재임 시절동안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개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교수 채용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가장 우선하는 주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일학교 수준 밖에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내 책 *Conceiving at the Christian College*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책은 백석대학교에서 번역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거의 20년간 휘튼대학에서 총장직을 역임하면서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왜 교수들이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시도하지 않고, 이를 두

려워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휘튼대학이 된 것이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도구로 기독교세계관을 강조합니다. 마이클 고인과 크레이그 바르돌로뮤가 공저한 <성경은 드라마다(2009)>에서 표현한 것처럼 큰 이야기(grand narrative)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통합의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총장님께서 강연 중에 세계관이라는 단어 대신에 '그리스도 중심(Christ centered)'이라는 단어를 신앙과 학문 통합의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관이라는 단어대신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계관(worldview)은 독일어 벨트양사용(Weltanschauung)에 해당되는 영어표현이 없어서 대신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전체 세계를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매우 강조했고, 모든 우주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일 인치도 없다는 그의 말에 잘 나타난 바와 같이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든 안 하든 내가 강조한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은 카이퍼의 주장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나도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일부에서는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네덜란드 개혁주의 용어라는 비판도 있지만 사실 기독교인의 세계관(Christian worldview)은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Christ centered worldview)'과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가 강조한 것이고 네덜란드 개혁주의(CRC)가 강조하는 것이다.

성경을 이해할 때 너무 구체적인 구절에 몰입하다가 잘못 해석해서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구체적인 구절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계관적 이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직신학이 그렇듯이 성경전체의 구조에 집착하다보면 성경의 특정 구절이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텍스트 상에서의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는 것과 구체적인 구절들의 깊은 의미를 자세히 살피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모두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 둘 중의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둘 다 필요한 것이지요. 세계관을 너무 강조하면 모자이크의 전체 그림만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키워드를 더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수들이 기독교대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일반대학에도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세계관동역회 안에는 이런 일반대학교의 그리스도인 교수들이 많습니다. 일반 연구중심대학에서 다른 학자들과 업적 평가 등의 면에서 경쟁을 하면서 기독교적 대안 제시까지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크리스천 학자들도 역시 교육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할까요? 이들을 위한 권면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연구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일반대학에서 기독교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려고 하는 교수들에게 어려움이 많음을 잘 압니다. 그분들께 사랑과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너무 모든 측면에서 잘 하려고 하면 지치고 쓰러집니다. 김 교수님께서 이 인터뷰를 하기위해 수고

하고 애쓰는 것을 처음부터 보아 왔습니다. 하루 전에 정중한 이 메일을 보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전문 사진작가를 데려와서 사진을 찍고, 기조강연이 모두 끝난 다음에 미리 준비한 VIP실에서 녹음기를 2개나 준비해서 인터뷰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보니 매우 치밀하게 준비하고 수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잘 하려고 피곤할 때까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십시오. 너무 잘 하려고 애쓰다가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일반 대학의 교수로서 뛰어난 학문적 업적도 이룩하고, 기독교학교의 교수처럼 제자도 잘 양육하는 이 양쪽의 요구를 모두 훌륭하게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김 교수께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이 두 가지 일과 세계관동역회의 행정까지 맡아서 매우 수고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정의 훌륭한 신앙전통을 물려받아서 많은 축복 속에 이러한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제가 주고 싶은 충고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제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신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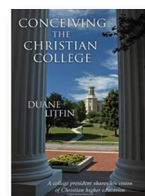
두안 리트핀(Duane Litfin)

휘튼대학교 7대 총장으로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7년 동안 총장으로 재임하였다. 재임기간 동안 휘튼대학을 질적, 양적으로 성장시켜 캠퍼스를 크게 확장하였다. 그는 많은 저널에 글을 기고하였고 많은 저서를 집필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널리 읽히는 *Conceiving the Christian College* (2004)는 기독교대학이 지녀야 할 독특한 특징들에 대해 다루면서 기독교대학의 정체성과 기독교 사상의 근본원리 등에 대해 논하는 가운데 보다 기독교대학이 보다 쾌적한 학문과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학력: 학사 (biblical studies) Philadelphia Biblical University
석사 (신학) Philadelphia Biblical University .
박사(Ph.D., Communication) Purdue University
신학박사(D.Phil., New Testament) Oxford University

경력: 1993-2010 Wheaton College 총장 역임(제7대)
담임목사 the First Evangelical Church
(Tennessee주 Memphis 소재)
부교수 Dallas Theological Seminary
Purdue University와 Indiana University 에서 강의.

저서: *Conceiving at the Christian College*
(Eerdmans, 2004)



우리에게 아브라함 카이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1)

기본 전제와 일반 은총에 대한 강조를 중심으로

이승구

논의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

지난 7월호에 아브라함 카이퍼(1837-1920)가 소개된 것을 계기로 카이퍼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 몇 차례에 걸쳐 간단한 논의를 하려고 한다. 기본적인 이야기는 한국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카이퍼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이 논의를 위한 기본적 전제를 먼저 밝히고,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한 번에 하나씩 논의를 해보려한다. 먼저 카이퍼와 클라스 스길더(Klaas Schilder, 1890-1952) 같은 분들의 논쟁을 중심으로 카이퍼의 사상에 접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 분들의 생각을 검토한 후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의 사소한 차이로서 논쟁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논쟁을 중심으로 카이퍼를 보고 읽는다는 것은 카이퍼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카이퍼를 특정 교회의 목사와 신학자로만 여기며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카이퍼를 그냥 역사의 한 인물로만 보면서 논의하는 것도 문제

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일단 카이퍼가 제시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이 세상에서의 활동에 대한 카이퍼의 이야기를 가장 건전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을 제시한 것의 하나로 보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 때 우리들의 기본전제는 카이퍼가 얼마나 성경에 충실하게 생각하면서 논의하려고 했는가 하는 점이다. (논쟁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카이퍼가 어떤 점에서는 틀렸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좀 지나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본적 논의는 성경에 충실하려고 했던 그의 의도를 중심으로 그에게 접근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건전한 그리스도인과 가장 건전한 교회의 모습을 카이퍼의 논의로부터 찾아보려고 한다.

건전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고등학교 때에 소개받은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Lectures on Calvinism)을 읽으면서 가장 처음 받은 인상도 그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얼마나 건전하게 소

1) 정성구,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서울: 킹덤북스, 2010), 그리고 지난 호에 실린 정성구 교수님의 기고문도 보라.

2)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931). 당시는 박영남 옮김, 『칼빈주의』 (서울: 세종문화사, 1971)라는 번역본이 있었다. 지금은 김기찬 목사의 더 좋은 번역으로 『칼빈주의 강연』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1996)이 나와 있다.

그리스도 중심이란 우리의 생각이 뚜렷하게 기독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과 학문에서 예수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질문의 답을 찾으려 해야 한다.



개 하고 있는가였다. 그런 점에서 1970년대부터 카이퍼는 한국 교회에서는 더 이상 멀리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사람이 아니었고(사실 카이퍼가 활동하던 그때 한국 교회는 막 시작되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때였지만)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말을 건네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들이 그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잘 듣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한국 교회 전체로 보면 심지어 건전한 교회에서도 그의 건전한 제시는 한 구석에 있을 뿐이었고, 오히려 많은 분들이 불건전한 성령 운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한 동안 이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고 하면서 세상과 신앙을 완전히 구별해 내는 일종의 이원론적인 경향으로 몰려가고 있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온 카이퍼는 우리들을 그야말로 건전한 신앙, 건전하고 성경적인 신앙 생활에로 초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반 은총(혹, 보편 은총, *communis gratia*)에 대한 카이퍼의 강조였다고 할 수 있다.

일반은총과 특별은총

일반 은총에 대한 카이퍼의 논의는 결국 특별 은총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의 여러 문화 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후대에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의와는 달리) 궁극적으로 카이퍼는 특별 은총의 빛에서 일반 은총을 논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래야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의미를 가진다. 특별은총 없이는 일반 은총도 없으며, 특별은총의 빛에서만 일반 은총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빛에서 일반 은총을 논하게 되는 것이다. (이점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구별하지 않거나, 은총을 아예 배제하게 되거나(그러면 결국 종국적으로는 인간과 물질만이 있게 된다, 아니면 특별 은총의 빛에서 일반 은총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카이퍼를 비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적용받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는 것만으로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 따라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도 일하시는 것(일반 은총)과 같이 영적 자녀된 (특별 은총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다. 이것이 카이퍼가 제시하는 가장 건전한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이원론적 경향을 나타내 보이는 다른 기독교 지도자들도 십자가 구속과 성령님의 특별 은총적 역사와 성경을 매우 강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카이퍼와 그가 토대로 하고 있는 칼빈(John Calvin)³ 등은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교회 생활을 바르고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건전한 신앙 형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일반 은총에 대한 강조가 그리스도인들의 문화 활동의 토대가 된 것이다. 물론 이 때 그리스도인들의 문화 활동의 원동력은 하나님 나라라는 특별 은총에서 온다는 것을 잊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특별 은총에 근거해서 활동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말할 때마다 이 점을 말할 수는 없는 형편이니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해야 한다는 말이 때때로 오해를 일으킨다. 그러나 모든 말은 다 의도와 그 맥락 전체를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않을 때는 쓸데없는 논쟁들이 나타나고 그 결과 분열이 나타난다).

그리스도인과 문화영역

이런 점에서 우리들은 카이퍼를 통해서 특별 은총 속

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은총의 영역” 이라고 말한 문화적 영역에서도 열심히 활동해야 한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건전한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이제는 목사나 선교사라는 직업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 여기에서 카이퍼가 제시하는 건전한 기독교 신앙의 표현이 있는 것이다. 모든 학문, 모든 기업, 모든 예술 활동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추구될 수 있으며, 그 일에 힘쓰는 것이 거룩한 일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이를 강하게 말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목적과 성경에 충실하려고 하는 기준 중시와 성령님을 따라 가려고 하는 기독교적 삶의 양식인 영적 삶의 태도에 충실할 것이 요구된다. 이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사실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원칙만 남고 실제로는 자신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만 남으며,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혀 기독교적인 하나님을 위한 학문,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활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되고 만다. 이것은 카이퍼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모든 학문을 연구하도록 하기 위

3) 정성규,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347.에서도 이점을 잘 강조한다.

4) 그는 1911년 자유대학교에 입학해서 헤르만 비방크 밑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1914년부터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1918년에 “유신론적 관점에서 본 수리 철학”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하고 1921년에 목사가 되어 목회하다가 1926년에 그의 은사인 게싱크(W. Geesink) 교수 후임으로 자유대학교의 철학교수가 되어 1935년에 도여베르트 등과 같이 개혁주의 철학회를 창립하고 1936년부터 <개혁된 철학(Philosophia Reformata)>를 발간해 낸 가장 대표적이고 철저한 기독교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해 1880년 10월 20일에 개교했던 성경적인 기독교 대학의 원형인 화란 암스테르담의 자유 대학교의 변천을 생각해 볼 때에도 잘 드러난다. 처음에 진정한 기독교 학문을 하도록 하기 위해 세운 자유대학교에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가르친 교수들과 학생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볼렌호벤(D. H. Th. Vollenhoven, 1892-1977) 같은 철저한 기독교철학자가 그 학교에서 형성되고 나타났다.⁴ 또한 헤르만 도여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라는 걸출한 법철학자의 활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자유대학교의 미술사 교수였던 한스 로크마커(Hans R. Rookmaaker, 1922-1977) 같은 인물들도 생각한다.

성령에 의존한 진정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하여

그러나 오늘 날 과연 자유대학교의 모든 교수들이 다 철저한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성령님께 의존하면서 각 학문 분과를 연구하며 학문 활동을 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 아직도 그리하는

분들이 개중에 있고, 논문 방어식이라는 매우 공식적인(formal) 행사 때에 각 분과의 교무처장(dean)이 하도록 되어 있는 기도에 참으로 카이퍼적인 사상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저 기도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의미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카이퍼의 문화적 사역에 대한 강조가 우리에게 의미 있으려면 진정한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학문 분과 등 여러 문화 영역에서 힘써 일해야 하며, 그 때에 참으로 하나님과 성경과 성령님께 충실하려고 해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기독교에서는 그 어떤 일을 그저 시작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 의존해서 우리의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려고 해야 한다. 그래야만 카이퍼의 목소리를 의미 있게 듣는 것이 된다.



이승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합동신학대학원, 세인트앤드류스대학교대학원에서 석, 박사 학위를 받고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을 거쳐 현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과 부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그요리문답강해1, 2』, 『21세기 개혁신학』, 『광장의 신학』, 『우리 사회 속의 기독교』 등이 있다.

5) 2006년 가을 학기에 자유대학교 신학부 초빙으로 방문교수로 자유대학교에서 연구할 때 박사 학위 심사 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던 신학부 박사 논문 방어식에서 당시 신학부 dean이었던 Abraham Van de Beek의 공식적 기도문이 얼마나 카이퍼적인지를 발견하고 신학 이외의 다른 분과에서도 같은 기도문이 사용되는 지 질문한 적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학문이 사용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문은 카이퍼리안(Kuyperian)적인 기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오판에서 속죄로 돌아서라

독일사에서 읽는 한국교회

추태화

연재 순서

- 1회: I. 파장의 중심, 한국 교회
 II. 비판의 대상이 된 독일 교회
 2회: III. 역사 왜곡에 앞장 서다
 IV. 분단을 저지할 수 있었다
 3회: V. 통일로 속죄하다,
 VI. 한국 교회가 가야할 길

선교 120주년을 넘어서는 성숙한 나이의 한국 교회, 하지만 미디어에 비치는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교회의 본질을 심각하게 성찰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분단과 통일이라는 면에서 자주 비교되어왔던 독일. 그들의 역사에서 교회는 어떠했는지 독일사에서 한국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발견해보고자 한다.

사진설명: 독일 나치제국 최고지도자 히틀러는 제국기독교 총회장에 월러 목사를 임명하고, 그를 통해 독일 교계를 회유 및 탄압하였다.

역사 왜곡에 앞장 서다

니체의 기독교 비판은 외로운 외침이요 반향없는 메아리로 끝나버렸다. 기독교를 향한 독설은 역설적이게도 니체의 애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망나니처럼 언어를 마구 내뱉던 철학자의 마음에 어찌면 자신의 교회를 향한 처절한 사랑이 숨겨져 있었는지도 몰랐다. 중요한 것은 독일 교회가 크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개혁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 는 거대한 공통같은 체제가 되어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독일 교회는 루터의 신앙 고백을 따르면서 민족주의 성향을 짙게 띠었다. 독일인이면 루터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종교적 전통으로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면 종교개혁 중에서 칼빈의 개혁주의는 독일 땅에서 크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민족주의에 있었다.

제 1차 세계대전(1914-1918)에서 패전하게 된 독일은 전쟁 후유증을 심하게 앓았다. 막대한 전쟁 보상금으로 경제가 휘청거렸고, 실업자들이 거리를 배회하였으며, 민족적 열등감마저 팽배해져갔다. 게다가 입헌 민주주의의 기치와 열정으로 태동한 바이마르 공화국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실패로 끝나갔다. 독일인들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했다고 느꼈다. 정당이던지 정치인이던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했다.

교회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국가프로테스탄트(Nationalprotestant)라는 옷을 입게 되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국가와 신앙의 관계를 분리할 수 없는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나아가 히틀러 정권이 요구하는 정치화된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다. 히틀러는 이런 논법으로 독일 개신교를 추궁했다. ‘국가가 소련 공산주의 혁명으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해주는데 대하여 교회는 어떻게 국가에 보답할 것인가?’ 그 결과 독일에서 루터교 전통이 가장 뿌리깊게 내린 튀링겐 주를 중심으로 나치 정권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나치당을 공공연하게 옹호하기 시작했다.

히틀러는 이를 놓치지 않고 독일 기독교 총회장에 L. 뮐러 목사를 임명하였다. 당시 여러 신학자들이 ‘실용적 기독교(positive christianity)’를 주장했는데, 뮐러 역시 그런 논리를 펴나갔다. 실용적 기독교는 국가의 정치체제에 순응하여 국가가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였다. 예를 들면 그는 ‘새로운 독일 교회’를 정립해 나아가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정적인 기독교에서 긍정적인 기독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국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게 뮐러 목사와 같은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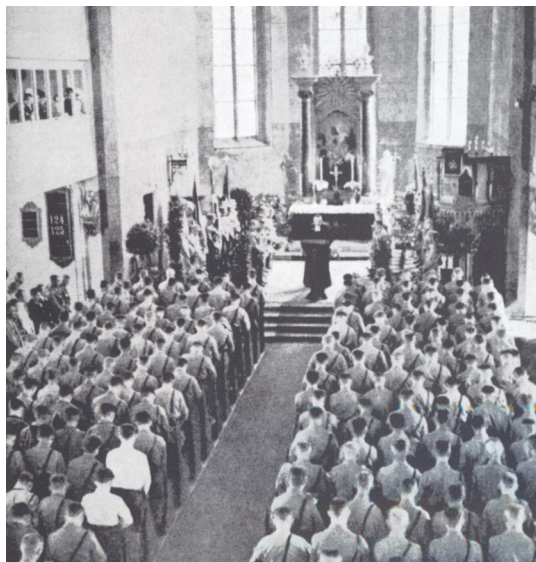
니뮐러(M. Niemöller), 본회퍼(D. Bonhoeffer) 등 의식 있는 교계지도자들은 나치에 동조하는 ‘독일제국기독교’에 반대하며 저항하였다. 그러나 정권의 비호를 받는 이들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 히틀러와 나치당은 돌격대(SA), 친위대(SS), 경찰, 군인, 법조계 조직을 사조직처럼 움직이며 저항세력을 탄압해 나갔다. 복음적 기독교인들이 제국기독교인들에 의해 밀고(密告)당하고, 경찰 조사와 지명 수배, 강제수용소에 갇히는 등 근현대사에서 실로 찾아보기 어려운 탄압이 가시화되었다. 기독교인들이 또다른 기독교인들에 의해 핍박을 당한 것이다.

분단을 저지할 수 있었다

만약 독일 교인들이 전적으로 깨어있었다더라면 히틀러가 정권을 잡지 못했을 것이다. 나치의 본색을 알아차리고 초기부터 저항한 고백교회(Bekennende Kirche)가 제대로 시대를 밝혔더라면 나치 지배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유감스럽게 고백교회는 정치적 세력으로 결성되지 못했고 효과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 교회와 교인들의 오판은 결국 독일 교회로 하여금 히틀러와 나치주의자들에게 주권을 내준 셈이 되고 말았다.

교회를 회유, 탄압하는데 성공한 히틀러는 제 2차 세계대전(1939-1945)을 준비하였고, 곧 이어 수 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을 일으켰다. 그 가운데 유대인

만약 독일 교인들이 전적으로 깨어있었다면 히틀러가 정권을 잡지 못했을 것이다. 나치의 본색을 알아차리고 초기부터 저항한 고백교회(Bekennende Kirche)가 제대로 시대를 밝혔더라면 나치 지배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치친위대원들. 제복을 입은 채 예배당에 입장한 그들은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척 하지만 기독교 율화정책을 위장하고 있으며, 실은 나치 권력을 과시하고 교회의 권위를 짓밟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당시 나치 제복으로 예배당 출입하는 행동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학살은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반인륜적, 반인간적 작전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독일의 가톨릭, 개신교 모두 이 만행에 대해 처음에는 침묵했음을 역사는 기억하고 있다.

연합군 중에서 특히 소련은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대하여 철저한 복수를 꾀하고 있었다. 히틀러가 스탈린과의 불가침 조약을 파기했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을 저지했고, 전쟁 중 수많은 소련 군인과 민간인

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발발하자 민주주의 동맹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소련연방공화국은 나치 독일에 대하여 연합전선을 폈다. 민주 진영 연합군은 독일 서부를, 소련군은 독일 동부를 탈환해 들어갔다. 그 결과 독일 영토는 동, 서독으로 분할되기에 이르렀고, 1948년 서독 민주주의 정부, 동독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므로 두 나라로 분단이 확연해졌다. 1961년 독일 개신교 교단인 루터교가 ‘공산주의 속 기독교’, ‘사회주의 안의 기독교’라는 주장 하에 동, 서독으로 분리되었다. 이후로 동독 교회는 사회주의 정권으로부터 혹독한 탄압에 시달리게 되었다. 기독교인들은 교육과 직업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고, 공산당에 가입하기를 강요당하였다.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외형적으로 교회를 탈퇴하는 이들도 나날이 늘어났다. 분단 초기 동독 교인은 1500만 명에 달했는데, 통일 직전에는 50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만약 독일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있었다면 히틀러에게 모든 권한이 이양되도록 좌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독일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있었다면 나치가 그토록 잔인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좌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독일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있었다면 독일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엄청난 오판과 오명을 뒤집어 쓰도록 좌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남은 자(the remnant)’를 구원하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히틀러같은 독재자가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던가. 그 역사의 비밀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추태화 독어독문학 박사이며 안양대학교 기독교문화학과 학과장이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문화분과 분과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문화의 미로에서 길을 찾다』, 『태초에 문화가 있었느니라』,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등이 있다.



캐나다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과 함께하는 창조세계의 길을 따라서

이흥남

벨 국제학교는 6년 전에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이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양육되고 있으며 성경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장이다. 벨 국제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목표는 성적을 높이는 영특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학교를 그런 한마당 놀이터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벨 국제 학교는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 창립 멤버였던 원동연 박사의 5차원 전면교육을 성경적인 5차원 전면교육으로 시도한 현장이다. 이 5차원 전면교육의 근본은 성경이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냐고 묻는다.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방법을 일러주신 것이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마음의 힘이며, “지혜를 다 해서 사랑하라.”는 지혜의 힘을 말한다. “몸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몸의 힘을 의미하며, “네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자기 관리의 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인간관계의 힘을 의미하고 이 다섯 가지의 힘을 교육의 현장에 접목한다. 실제로 벨 국제학교에서 시험성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직 이 다섯 가지 힘을 골고루 접목시켜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다. 그래야 그들 안에 꿈도 비전도 커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17세에서 20세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꿈을 꾸며 많은 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살아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지금 교육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몇몇 교육의 수장들은 아직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권만을 이야기 한다. 선생님들의 가벼운 체벌까지도 허용하지 않아 지금 교육의 현장은 가끔 혼란을 겪기도 한다. 교육이 무엇인가? 성경에서의 교육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사람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면 그 교육은 실패한 것이다. 성적 제조기로는 만들었지만 ‘사람’으로 키워내지 못했다면 후대에는 소망

이 없다. 이제는 우리의 교육이 진정한 교육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벨 국제 학교에서의 교육은 정말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한 현장이다. 공부해서 남 주냐?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공부해서 남을 줘야 시대에 소망이 있는 것이다. 언젠가 어느 한 대학교 신입생 면접 고사에서 “너는 벨 국제학교에서 3년 동안 무엇을 배웠는가?”라는 면접위원의 질문에 그 학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1학년 때는 만주 벌판에서 기합 받으면서 자신을 찾는 법을 배웠고, 2학년 때는 캐나다에서 창조 세계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바른 세계관을 형성하여 이웃을 섬기는 법을 배웠으며, 3학년 때는 필리핀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와 노동을 하며 세상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주 동안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캐나다 세계관 대학원과 함께 창조세계의 길을 따라 걷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물어본다.

첫째,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작품인가를 학생들에게 그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될 것이



다. 그렇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세상을 밝고 맑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다.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다. 우리는 하늘에서 살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는 웃음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는 눈물도 있다. 아름다운 성공도 있지만 그 뒤에 쓰라린 실패도 찾아오는 땅이다. 그곳에서 이기려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속하셨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창조 질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한다. 그럴 때 세상의 거센 풍파를 묵묵히 이길 수 있다. 교회 내에서 들려지는 은혜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 가운데 삶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둘째, 기독교학동역회에서 설립한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약 14년 전에 트리니티 대학교 기독교세계관 대학원 설립을 논의하기 위하여 양승훈 박사와 함께 캐나다에 다녀왔다. 그 후 두 사람은 사

역의 길이 서로 달라 한동안 함께 하지 못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 분리가 아니라 협력하여 함께 가야 한다는 감동을 주셨다. 그 후에 벨 국제학교가 세워졌다.

세계를 바울과 함께 누웠던 의사 누가는 갈릴리를 호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베드로는 갈릴리를 바다라고 불렀다. 벨 국제학교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계를 보게 하고 느끼게 하여 갈릴리가 바다가 아니라 호수라고 부를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자를 만들고 싶은 현장이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교육. 세상의 교육을 되짚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살아있는 현장. 많이 본 자만이 많은 꿈을 그릴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따라 창조세계의 길을 따라 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벨이라고 부른다.



이홍남 벨 본부교회(대신) 담임목사, 벨 국제학교장, 몽골국제대학 실행이사이다. 1955년 대전 출생으로 한영대학교 신학과 졸업하고 대신 대학원, 한남대학교 지역개발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 신학 연구원 과정을 수료하였다. 1996년 성경적교육실천운동본부 창설, 2004 21세기 한국 교회를 이끌 100인 선정(국민일보)으로 선정되었다. 저서로는 『벨 5차원 성경적 교육』(예영) 『벨 5차원 성경 공부법』(예찬사) 등이 있다.

‘반값 등록금’ 추진의 선행조건

◎ 김태황

정치적 쟁점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대학교 등록금이 대학생 개인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6~7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그 영향으로 현 정부에서는 대부분의 대학교가 등록금을 소폭 인상 또는 동결해 왔다. 그런데 올 5월 한나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어 ‘반값 등록금’ 추진을 언급하면서 그리고 올 1월 민주당 내부 논의 과정에서 현실성 부족으로 유보되었던 이 사안이 역시 신임 대표가 촛불집회를 방문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자는 주장은 이제 정치적 쟁점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대학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대기업은 국가 예산으로 등록금을 지원해 줄 경우 몇 백억원에서 천억원에 이르는 지원금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양극화 해소의 방향과는 상반되는 사회적 현상을 야기시킬 수도 있겠다.

필자는 대학교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된다. 취지에는 모두 공감할 만하다. 특히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는 전적으로 동감이다. 문제는 일률적인 인하 또는 ‘무상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

기에는 시기상조이고 실현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다. 취지를 살리면서 대안은 없는가 하는 점도 고민스럽다. 정치적 이슈에서 비롯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성급함과 군중의 감성적 이기주의가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반값 등록금’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견해는 예산 확보만 염려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상이다.

국가재정운용의 공정성

먼저 국가 재정 운용의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 일자리 창출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무 중심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육성과 발전이 필수적이다. 이제 정착 단계로 진입하려는 마이스터고(高)의 활성화가 더 시급하다. 실업률이 높은 것은 일자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체들의 인력난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대학교만이 미래 산업 역군을 양성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 구조조정은 장인(匠人)의 잠재력을 길러낼 만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육성과 기능 및 기술 인력의 사회적 경제적 위상을 높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가능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으로는 대학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비해 대학의 글로벌

‘반값등록금’ 문제는 정치적 이슈에서 비롯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성급함과 군중의 감성적 이기주의가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면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강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경쟁력은 한참 뒤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교육 콘텐츠 수준의 미달, 교육 인프라(시설) 투자 부족, 교수진 부족 등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학교의 투자 확충을 촉구하곤 한다. 이와 동시에 중장기적 투자 재원을 등록금 인하 재원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반값 등록금’ 논쟁은 본말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실현하기가 어렵다. 주어진 예산 지출 규모라면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다. 정치권이 대학생들에게 성급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쏠붙을 들도록 부추긴 일도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면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강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선행조건들

다행히도 예산 확보가 큰 무리없이 가능하다고 전제해 보자. 그래도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 선행조건이 실질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첫째,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 이후 차기 또는 차차기 정권과 국회에서 그 파급영향이 발생할 것이므로 추진 주체가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국가 재정 부담이 확대될 것이

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당장은 연간 4~5조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할지 몰라도 교육 분야에서만도 공정한 재정 지원의 목소리가 확산될 것은 뻔하다. 이를테면 사교육비 부담 완화의 요구는 어떠한가? 현재 영어와 수학 두 과목만 일반 학원에 다니는 일반 고등학생의 연간 교육비도 연간 1,000만원이다. 간단하게 계산해 보자. 고등학생의 분기별 등록비와 운영비는 45만원이니 연간 180만원이다. 서울 시내 일반 학원을 예로 들면 월 학원비는 과목당 평균 35만원 수준이다. 영어와 수학 두 과목이면 월 70만원이고 연간 840만원이다. 고등학생의 기본적인 순수 교육비만 이미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한다. 물론 사교육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학원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일반화된 현실성을 고려해 보자는 것이다.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라도 마련할 수 있다지만 고등학생은 학원비를 벌 수도 없다. 기초교육 투자 확대와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 확대 등의 재정 수요도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반적인 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의 일관성에 부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선두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다. 이에 따라 출산 장려와 기초교육 부담 해소, 고령층 인력 활용 증진, 고등교육의 민영화 등의

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을 유지시킬 수밖에 없다. 30년 전 고교 평준화 이후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가장 큰 불만은 잦은 변경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임을 상기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대학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률적으로 사립 대학교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지배력을 확대하기 보다는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별도의 국공립 대학교를 증설 또는 확장하여 지원을 집중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지방 국공립 대학교의 집중 지원으로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여 저소득층이 양질의 교육을 저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자는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교육 복지가 아니라 효율적인 교육 투자가 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대학교의 등록금도 무료이고 입학도 수월하지만 탈락률도 높고,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교와는 별개의 전공 영역별 그랑제콜(Grandes Ecoles)이라는 소수 정예 교육기관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대책이 획일적인 평준화의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투자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대학교를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의 자구 노력을 유도한다는 명분하에 숨겨둔 돈 보따리를 내 놓으라고 압박지르는 것은 대학교를 은연중에 부조리한 집단으로 인민재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라고 요구하면서 교육 및 연구 인프라 투자보다는 장학금에 우선 집중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대적인 감사(監査)를 통해 한 두 번은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지속될 수는 없다.

공정한 게임이라면, 상대방의 행동에 한 두 번은 무방비할 수 있어도 일방적인 게임 운영이 반복될 수는 없다.

다섯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는 100% 공감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교육비용보다 더 큰 수익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만일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기 위해 연간 4조원의 예산을 지출한다면, 16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기타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수 연봉 2,500만원의 일자리 16만개가 창출된다면 소득파급효과는 등록금 부담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치권이 책임져야

무엇보다도 이번만큼은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 정치권이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한번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오후 5시에도 빈둥거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일하도록 했더니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일꾼과 갈등이 빚어지는 역설적인 상황(마 20: 1-16)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상황이 다른 두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일깨워줄 수 있는 맞춤형(부분적이라 하더라도) 대책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 글은 「크리스천 CEO」 7월호에 게재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김태황 파리제10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이다. 기획재정부 재정정책 자문위원, 국토해양부 규제개혁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독교학문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마음 그윽한 곳에 숨겨진 선물, 평화의 묘약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

‘엘 시스템마’(El Sistema). 베네수엘라 국립 청년 및 유소년 오케스트라 시스템 육성재단의 이름이다. 길거리의 폭력과 마약으로부터 한 나라를 바꾸었다고 전 세계가 찬사를 던지고 있고, 요즘이 이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학자이자 음악가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는 1970년대, 음악을 위한 사회행동으로 빈민촌 아이들에게 악기를 하나씩 들려 레슨하고 합주하는 앙상블 운동을 시작했다. 지하주차장에서 11명으로 시작한 이 자그마한 운동이 크게 성공을 이뤄 이전 300명의 단원에 이르는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로 우뚝 섰다. 전국 125개 학교에서 1만 5천명이 나 되는 엘 시스템마 출신 교사들이 이끄는 이 프로그램에는 25만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가 적극적인 문화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LA필의 차세대 지휘자인 구스타보 두다멜이 이곳 출신이라 하여 더욱 놀라게 했고, 아바도, 래틀, 주빈 메타, 도밍고, 시노폴리 등 기라성 같은 세계 정상의 음악가가 이들 교육에 가까이 동참하고 있다.

실은 우리나라에도 이 못지않은 또 다른 ‘엘 시스템마’가 있다. 지형식 장로가 이끄는 가덕도의 ‘소양원’이나 ‘부산 소년의 집’ 같은 곳들이 불우한 환경을 음악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대표적인 본보기이다. “사랑의 물결이” “영혼을 고이 싸”는 “하늘 위에서 내려” 온 “맑은 가락”. 음악의 힘은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1889년, 감리교의 캠프집회에 참여한 미국의 전도자 쿠퍼(W. G. Cooper, 19th C)는 우연히 ‘놀라운 평화’란 제목의 시가 적힌 쪽지를 줌게 되었다. 그는 이 시에 깊은 감동을 받아 곧바로 오르간 건반으로 달려가 WONDERFUL PEACE란 멜로디를 단숨에 작곡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같은 집회에 참여한 전도자 코넬(W.D. Cornell, 19th C)이 지은 시였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Peace, peace, wonderful peac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above).” 그렇다.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평화의 원천(源泉)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410장)를 지은 빌함(P.P. Bilham, 1865-1936)도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Peace, peace, sweet peace! Wonderful gift from above)”이라 노래하고 있다.



김명엽

울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교회음악아카데미 원장

피조물인 인간은 누구나 마음 “그윽히 깊은 데”에 조물주께서 숨겨주신 최고의 선물, 심금(心琴)이란 악기가 있다. 먼지가 쌓이고 녹슬었더라도 이 악기를 꺼내 들기만 하면 곧바로 ‘즐거움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찬송의 궁정’ 입구인 ‘감사의 문’턱에 다다른다(시 100: 1-4) 도니제티의 오페라에선 가짜 ‘사랑의 묘약(妙藥)’도 효능이 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악이야말로 평화의 묘약이다. 주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시 22: 3).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다

십자가 만들기

윤성진



사진1. 구원의 십자가

일과 신앙의 괴리 속에서

현대미술 조각가로서 현대미술의 여러 유형들을 만들어 왔던 나에게 십자가 만들기가 시작된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어느 날, 조각가로서 오랫동안 해오고 있던 일과 나의 신앙과의 사이에 깊은 괴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런 상태를 지속한다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다. 당시 나의 신앙은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정도이었으나, 상이한 두 가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양심이 편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나는 세계적인 현대미술의 흐름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작품의 바탕으로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리고 주변의 작가들과 그 틀 안에서 경쟁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나를 조각가로서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고, 나 자신이 꽤 그 일에 성공하고 있던 차이였다. 현대 철학의 새로운 이론들은 서둘러 습득하여야 할 과제였고, 내가 만든 작품들은 이런 틀 안에서 평론가들에 의해 분석되고 평가되었다. 20세기 말에 처한 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이 시대를 해석하여 주고 삶의 기초가 되며 미래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자연 나의 작품들은 그 틀 안에서 형태되어 진 것이었다.

회심의 계기

그런데 어느 날, 스스로 양심을 갖고 살며, 양심을 거스리지 않으려면 주변의 많은 작가들과 함께 유행하는 사조에 맞추어 가며 작품을 하는 일과 교회 가는 일(?) 중에 하나는 그만 두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과연 어느 쪽을 그만 두어야 할 것인가로 고민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하여 온 그래서 생활 수단이 된 일을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교회 가는 일을 그만 두어야겠다고 결정할 무렵이었다. 특별한 일이 생긴 것은 1997년 7월 27일 오후 3시경이었다. 로

마서 1장을 읽다가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성경의 내용들이 하나로 꿰어지는 것이었다. 거대한 진리가 내 앞에 다가왔다. 그 동안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 하였던 성경의 내용은 단편적이고, 절대적 진리에 접근되지 못한 일반 철학에 약간의 신비성을 가미한, 한 마디로 횡설 수설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충격은 내 삶의 지각변동을 가져왔고, 이후로 일 년여 동안,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는 일과 설교테이프 듣는 일이 생활의 전부가 되었다. 물론 주일에 교회 가셔도, 줄기에 가장 적합한 뒤에서 세 번째, 나의 지정석에서 맨 앞자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주일설교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 하였다.

이렇게 지내면서 작품제작에 대한 생각을 잃어 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작품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하고 생각하며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첫 번째로 생각난 것이 십자가 이었다. 하지만, 이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초대교회 이후, 오랜 동안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물으로써, 교회에서 사용하여 왔고, 형태들도 다양하게 수없이 만들어 왔기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성경의 서술적인 내용들을 현대적인 미술 언어로 표현하여 볼까? 신앙적인 세계를 추상미술의 형태로 만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등의 구상을 하고 있었다.

구원의 십자가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전혀 새로운 형상의 십자가가 머릿 속에 그려졌다. 나는 그 모습을 지우지 않으며 아프리카로 내려가 순식간에 만들었다. 거의 다 완성하기까지 1시간도 안 걸렸다. 그 십자가가 '사진 1'의 십



사진 2. 생명나무, 1999, 알루미늄, 320x180x60cm

자가 이다. 아프리카에 굴러다니는 나무 토막을 잘라 내고 드릴로 구멍들을 마구 뚫은 형상인데, 만들면서 보니 뚫린 구멍들이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이사야서 53장 5절의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의 내용이 생각나기도 하였다.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어떤 의미로 어떤 내용의 형상을 만들어야지 하고 계획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불현듯 떠오른 하나의 상이 나오 하여금 만들지 않을 수 없게 하였던 것이다. 이후로 새로운 십자가의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생각나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서 수년을 지나니 꽤 여러 가지 모양의 십자가들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어떤 형태의 십자가의 형상이 떠올라 만들게 되는데, 만들 때는 그 십자가의 명제는 커녕 어떤 의도도 들어나지 않은 상태로



사진 3. 부활, 2000, 스테인레스스틸, 20x11x8cm

시작하는데,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말씀의 내용이 생각나기도 하고, 다 완성이 되고 한참을 지나서 새로운 의미가 덧붙여지기도 하였다. 첫 번째로 나무에 구멍을 마구 뚫어 만든 십자가는 후에야 ‘구원의 십자가’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도 그런 연유 때문이다.

생명나무 십자가

‘사진 2’의 십자가는 제목이 ‘생명나무 십자가’이다. 알루미늄 판을 두드려 식물들을 만들었던 90년대 초반의, 십자가를 만들기 전의 작품제작의 주된 기법을 사용하여 만들었는데, 1cm두께의 알루미늄 판을 기계톱으로 자른 다음, 볼로 달구면서 두드리는 단조의 방법으로 잎사귀들을 만들고, 이것들을 용접하여 완성하여 나가는 것이었다. 이 단조는 출애굽기의 성막 짓기에도 볼 수 있는 두드려 만들라고 하신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은혜가 되었다. 불에 달구어 두드리면

원자재의 강도가 훨씬 높아지는 연단의 의미이다. 십자가 형태에다 나무를 겹친 듯한 이미지인데, 십자가의 구원으로 에덴동산에서 잃었던 생명을 되찾는 의미를 상징한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의 범죄 이후,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구원으로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를 하나의 십자가 조형물에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십자가는 프랑스에서도 여러 차례 전시되었었다. 파리의 내가 살고 있던 마을의 살롱에 출품하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였고, 다른 지역의 살롱 전에도 초대되어 전시하였었다. 파리시청근처의 Cloître des Billettes 전시장과 2003년 서울에서의 개인전에도 전시되었다. 후에, 한국에서 어떤 크리스천 부인이 매입하여 자신의 집 정원에 설치하였었는데, 남편 분이 신앙이 좀 약하셨던지, 이 작품때문에 집이 너무 교회 같다고 하여 그 집에서 쫓겨나 다시 주인이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후 LA의 이종용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코너스톤 교회에 강단 전면에 설치되었다. 그 교회는 새로 신축하였는데, 어느 분이 이 십자가를 그 교회에 기증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교회 입구 쪽에 세우려고 하였으나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강단에 한번 세워 보자고 하시여 들고 가서 세우니, 그곳에 환경에 자로 잰듯이 한치 오차없이 딱 맞는 것이었다고 한다. 결국 그 십자가는 그곳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생각이 들

었다. 그 후에 이 '생명나무 십자가'는 주문에 의해 비슷한 형태로 제작되어 노랑진 CTS방송국 건물 신축할 때, 건물 전면에 세워지기도 하였다.

부활

한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코너스톤 교회를 방문하셨다가 그 십자가를 보셨는데, 후에 나를 만나 서서는 자신이 평소 교회강단에 십자가를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보시고는 생각을 바꾸었노라고 하시고, 온누리 교회를 위하여도 십자가를 하나 구상해 달라고 하셨다. 그 말씀을 쫓아서 구상한 것이 '사진 3'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십자가이다. 뒷 편에 십자가가 있고 앞에는 부활하시어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다. 이 사진의 작품은 모형으로 제작된 것이고, 하용조 목사님께 모형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이후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하였다. 3M 정도의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니 온누리 교회 안에 적당한 장소도 찾기에 쉽지 않고 특별히 십자가 제작을 위한 재정을 만드는 것도 복잡한 일일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새로운 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작품이었다면 어떻게든 설치되었으리라는 생각도 들지만 만약에 다른 장소에 이 십자가가 어울리는 곳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어디든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윤성진 1952년 대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남대학교와 전북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1995년 이후,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으며, 2005년에 파리에 갤러리 루멘을 설립하였다. 그간 국내외에서 7번의 개인전과 100여회 이상의 초대전에 참가하였고 1986년, 동아미술대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작품들은 국립현대미술관, 인촌기념관, 전쟁기념관, 한국은행,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LA, Cornerstone 교회, CTS 사옥, 오산고등학교 등에 소장되어 있다.



모성적 영성에 마음을 담그다

민규동 감독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강진구

『엄마를 부탁해』의 도시적 영화 버전

돌고래, 북미산 대머리 독수리, 그리고 어머니. 이 세 가지 사이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셋 모두 다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어마 bombeck

미국의 여류유머작가로 널리 알려진 어마 bombeck(Erma Bombeck)은 모성애가 사라진 미국현대사회를 향하여 재치있고 의미있는 말을 남겼다. 196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보편화되고 여성인권운동이 가속화되던 시기에 겪어야 했던 가정의 붕괴와 여성의 남성화 현상에 대하여 그녀는 우려 섞인 유머를 자주 날리곤 했다. ‘어머니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임을 주장하던 그녀였음을 생각할 때 어머니를 멸종 위기에 놓인 존재로 인식한 것은 모성애의 가치가 소멸되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펍



케하고, 아들 여자친구의 임신 해프닝은 청춘드라마이며, 유부남과 사랑에 고민하는 딸의 이야기는 멜로드라마의 한 장면이다.

그러나 뭉니뭉니해도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김지영)의 속 뒤집어놓는 모습이야말로 이 영화의 볼거리이자 주인공 엄마의 가치를 도드라지게 만드는 대목이다. 겪어 본 사람은 안다. 치매에 걸린 가족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인희는 말한다. ‘사는게 무섭지, 죽는 건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엄마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조차 자신을 걱정할 처지가 못되나 보다. 자신이 죽은 뒤 살아갈 가족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다.

모성적 영성의 발견

가족에 헌신했던 엄마의 죽음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은 한국 교회가 되찾아야 할 모성적 가치를 전해주고 있는 까닭이다.

모성애의 출발은 생명지향성과 희생적 돌봄에 있다. 영화에서 엄마는 자신이 낳은 자식을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 보인다. 삼수생 아들의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화를 내기 보다는 아들을 대신하는 책임감이 앞선다. 도박에 빠진 남동생 근식이를 위해 자신의 죽음으로 받게 될 생명보험증서를 올케에게 전해준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로부터 온갖 봉변을 당하면서도 수발을 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역시 모성애적 돌봄의 깊이와 넓이를 말해준다.

현대인들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행하는 교회를 기대하고 있다. 세상에는 자신의 문제를 지적하고 파고들어 상대적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내세우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까닭이다. 그렇다고 교회는 자신의 마음을 흡족케 하는 대상에게만 관심과 돌봄이 이루어져서도 안된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문제 너머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존재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수가 있다. 존재가 지니는 생명이 곁에 드러난 문제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놓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모성애를 지닌 엄마는 다르다. 인회를 둘러싼 가족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 누구도 희생적 돌봄의 영역에서 제외되는 사람 역시 없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20:28)’

둘째 허물을 가진 자를 용서하고 포용하는 넓은 마음은 모성적 특징의 또 다른 부분이다.

인회는 큰 딸이 같은 직장의 유부남과 사귀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 일로 자신의 다 큰 딸을 심하게 책망하거나 속된 말로 사람 잡는(?) 일은 하지 않는다. 스스로 알아서 돌아올 때 까지 기다릴 뿐이다. 우리는 그 딸이 결국 헛된 욕망으로부터 돌아서서 엄마처럼 결

혼하고 살겠다고 했을 때 기독교 안에 뿌리내려왔던 모성적 영성을 발견하게 된다.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끝까지 참으신(히12:3) 예수님의 모습에는 섭섭해도 견뎌내고 모든 허물을 끌어안을 줄 아는 엄마의 마음이 담겨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23:34)’

셋째 엄마는 아버지와 달리 높지 않고 넓고 낮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 품에 쉽게 안길 수 있다. 21세기 교회가 되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모성의 영성이다. 문제 많은 가족을 품고 사랑 가운데 죽어가는 영화 속 엄마 인회가 그랬듯이, 죄 많은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랬듯이 허물을 감싸주고 끝까지 아무도 원망하지 않은 채,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고 자녀를 돌보는 위대한 어머니의 모성에 같은 영성이 교회에 흘러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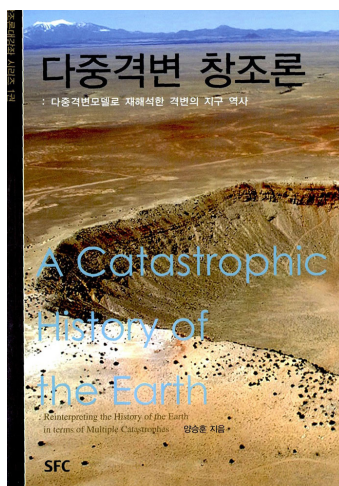


강진구 고신대 컴퓨터영상선교학과 교수이며 영화평론가이다. SFC문화연구소장,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중강연과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사역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다중격변 창조론

Catastrophism에서 Neo-Catastrophism으로

◎ 최태연



양승훈 저, 서울: SFC출판부, 2011

다중격변 창조론의 자리매김

양승훈 교수의 새 책 『다중격변 창조론』은 양 교수가 단일격변 창조론으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 다중격변 창조론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학문적 여행보고서이다. 이론적으로 이 책은 한국 창조과학운동의 단일격변설처럼 전지구적인 노아의 홍수를 인정하면서도 격변의 다양성과 다중성을 주장하는 점에서 단일격변설을 수정해 준다. 이 변화는 바른 성경해석의 원리가 무엇인가와 지질학의 증거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단일격변설과의 시각차에서 왔다. 양 교수는 성경해석에서 유기적 영감설에 근거한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의 창세기 해석을 수용하고 지질학에서는 새로운 격변이론인 신격변설을 받아들였다. 단일격변설의 토양 위에서 복음주의 성경해석과 신격변설(neo-catastrophism)이 결합되어 낳은 ‘이종강세(heterosis)’라고나 할까!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창조과학(Creation Science)에 뿌리를 두면서도 현대 지질학 연구의 성과를 솔직하고 진지하게 검토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하나 인상적인 점은 이 책이 창조과학 못지않게 대중적으로 호소력있는 이론구성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양 교수가 창조과학 분야에서 20년 이상 수행한 대중강의의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출판한 데 있을 것이다.¹ 이 책에서 양 교수는 처음부터 경쟁관계에 있는 네 가지 입장을 유형적으로 열거하고 자신의 선택이유를 알기 쉽게 밝힌다. 지질학적으로 지구의 역사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에는 크게 나누어 균일론과 격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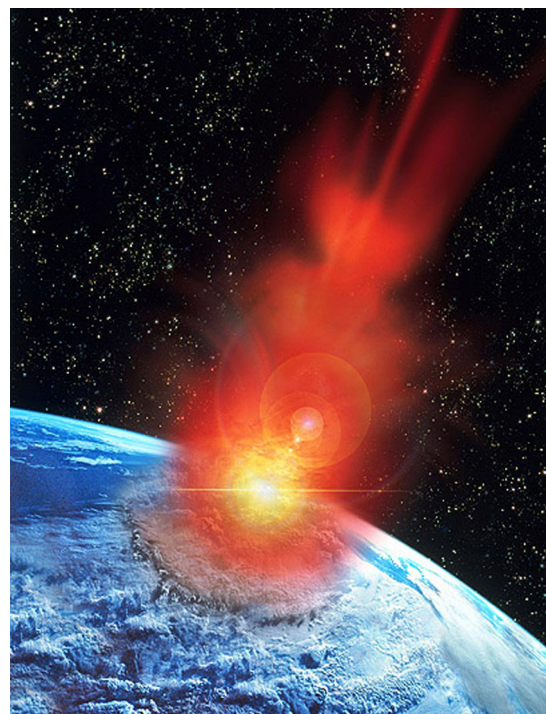
1) 그동안 출판된 양교수의 창조론 관련 책으로는 양승훈, 『창조론 대강좌』 (서울: CUP, 1991 초판; 1995 개정판; 1996 개정증보판); 양승훈, 『창조와 격변』 (서울: 예영, 2006 초판; 2010 개정판); 양승훈 원저, 장슬기 · 이화진 · 서진 · 진형근 편저, 『창조론 탐구학습』 (서울: 좋은씨앗, 2010)이 있다.

론이 있는데, 양교수는 균일론을 (진화론적)동일과정설과 (창조론적)국부홍수설로 구분하고 격변론을 단일격변설과 다중격변설로 구분한다. 양 교수가 네 입장에서 다중격변설을 지지하는 이유는 적절한 성경해석의 결과 전지구적 홍수를 인정하는 동시에 지질학적인 증거에 따라 지구상에 존재했던 여러 번의 격변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 교수의 이러한 입장은 어제오늘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동안의 다양한 기독교학문적 노력이 축적된 결과이다. 그는 물리교육학도로 출발하여 20여년간 물리학을 전공한 물리학자이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는 창조과학과 기독교세계관을 연구했고 1990년에는 과학사와 신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그의 학문은 물리학과 과학사와 신학이 결합된 학제간 연구의 결실이라고 하겠다. 그는 수백 명의 한국창조과학자 가운데 독자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발전시키고 그 결과물을 저서로 제시한 유일한 인물이다.

다중격변 창조론의 형성과정

이 책의 서문에서 양 교수는 단일격변설을 떠나 다중격변설을 주장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한국창조과학회의 주요멤버로서 지구의 연대를 6000년으로 보는 젊은지구 창조론(young earth creationism)과 그와 일치하지 않는 과학적인 증거사이에서 고민해왔다. 그러던 중 그는 2003년경 19세기 프랑스의 고생물학자

퀴비에(George Cuvier)가 1829년에 출간한 『지면의 격변들에 관한 강의』라는 책을 읽다가 처음으로 다중격변의 아이디어에 접했다. 양 교수는 지층들의 부정합과 지층마다 화석의 종류가 다른 점에 착안하여 다중격변설을 주장한 퀴비에를 통해 단일격변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후 양 교수는 1978년 UC버클리 알바레스 교수팀의 연구에 의해 밝혀진 K-T지층이 소행성의 충돌 결과로 생겼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전지구의 350군데서 발견되는 이 지층은 중생대 쥐라기 말에 멕시코 유카탄반도 칩술룸에 떨어진 직경 10km의 소행성으로부터 낙하된 물질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운석에서 발견되는 이리듐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 충돌의 결과 대기는 먼지로 뒤덮히고 여러 곳에서 화산이 분출하여 지구 전역에서 공룡을 포함한 중생대의 생물 대부분이 멸종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 다중격변설을 지지해 주는 연구는 시카고대학의 지질학자 브레츠(J. H. Bretz)에 의해 1920년대부터 제시되었던 빙하홍수 이론이다. 브레츠는 몬태나 주의 거대한 빙하홍수였던 미줄라 호수가 여러 번 일으킨 홍수에 의해 용암지대의 수로와 현무암 자갈퇴적층이 생겼다고 주장했고 그의 주장은 1965년 이후 지질학계의 인정을 받는다. 양 교수는 퀴비에로부터 시작하여 운석충돌, 화산폭발, 빙하홍수 등으로 지구 역사에 수차례의 대격변이 있었다는 신격변설을 받아들여 자신의 <다중격변 창조론>



양 교수는 쿼터너리로부터 시작하여 운석충돌, 화산폭발, 빙하홍수 등으로 지구 역사에 수차례의 대격변이 있었다는 신격변설을 받아들여 자신의 <다중격변 창조론>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다중격변 창조론이 해결해야 할 과제

양 교수의 다중격변 창조론은 두 가지 기본가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지구의 역사를 연구할 때 성경 창세기의 기록을 사실로 인정하는 신학적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격변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과학적 가정이다. 이 두 가정은 서로 다른 권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될 때, 어느 가정을 우위에 놓을지의 문제가 등장한다. 양 교수의 다중격변 창조론은 이 가정들을 최대한의 조화시키려는 노력의 산물로 보인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하나의 가정만을 중시하는 양 쪽 진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취약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양 교수의 다중격변 창조론은 앞으로 더 설득력 있는 대답을 제시해야 한다. 서평을 마치면서 그러한 과제 몇 가지를 언급한다.

1) 전지구적 노아홍수의 증거

양 교수는 창세기 7장 11절과 19절, 8장 9절에 근거하여 노아 시대의 전지구적 홍수의 실재를 문자적으로 긍정한다. 그는 이 홍수가 신생대 제4기 홍적세(180만년~1만년 전)에 일어났다고 본다. 그러나 전 세계에 남아있는 홍적세의 퇴적층이 어떻게 노아홍수라는 일회적인 대격변에 의해 형성되었는지는 이 책의 어디에서도 입증되지 않는다. 더욱이 그가 지질학적으로 여러 차례의 국부홍수에 의해 형성된 지층과 화석증거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모호해 진다. 전지구적 홍수가 지질학적으로도 분명하게 입증되는지, 아닌지를 좀 더 분명하게 밝혀주어야 할 것 같다.

2) 지질주상도의 타당성

양 교수는 책의 206쪽에서 운석공의 연대를 설명하면서 이른바 지질주상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다중격변 창조론도 이 지질주상도의 시대구분과 연대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

반적으로 지질주상도는 동일과정설의 패러다임을 전제하고 만들어졌다고 본다. 양 교수가 동일과정설을 부정하고 격변설을 주장하면서 이 도표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양 진영으로부터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비판받게 된다. 양 교수는 격변론의 입장에서 지질주상도를 받아들이 수 있는 이유를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할 것 같다.

3) 신중한 성경해석의 제시

양 교수는 성경을 해석할 때 피해야 할 태도를 다음 네 가지로 본다. 첫째, 성경의 용어를 오늘날의 과학용어와 같은 의미로 본다. 둘째, 성경 기록자의 사고나 문화를 오늘날과 동일시한다. 셋째, 성경의 최초 독자와 오늘날의 독자가 처한 환경과 문화의 차이를 무시한다. 넷째, 성경이 과학적 사건을 모두 기록했다고 가정한다. 양 교수의 이러한 입장은 오늘날 복음주의 성경해석학의 기본 입장과 일치한다. 이 해석의 일반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실제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더 조심스러워야 할 것 같다. 인간의 타락 이전의 동식물의 죽음이 있었는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복음주의 신학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죄에 대한 별로서 “흠으로 돌아갈 것(창 3:19)”과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는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 때문에 타락 이

전에 인간의 죽음이 있다고 보는 해석은 소수입장이다. 반면에 과학적으로는 인간의 등장 이전에 여러 번의 격변이 있었고 그 때마다 동식물의 죽음이 있었다는 증거는 너무도 분명하다. 이런 경우에 어떤 원칙을 우선시할 것인가? 과학적 증거 때문에 성경을 희생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한 성경해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 신격변론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

양 교수의 다중격변 창조론에 이론적 틀과 증거를 제공한 신격변설(neo-catastrophism)은 아직 체계적으로 완성된 이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지질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들에서 얻어진 관점을 종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좋게 말하면 이 이론은 더 발전될 여지가 많은 이론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직 취약한 이론이다. 따라서 이 이론 자체를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격변설의 타당성이 높아질수록 양 교수의 다중격변 창조론의 타당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태연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및 Th.M. Cand.,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Paul Ricoeur의 해석학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이며 한가죽교회 목사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운영위원 및 이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세계관운동 교육과정개발위원장과 CUP 출판위원,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이론분과위원장, 한국기독교철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 신격변설에 대한 연구서로는 다음의 책이 있다. D. V. Ager, *The New Catastrophism: The Importance of the Rare Event in Geological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Richard J. Huggett, *Catastrophism: Asteroids, Comets and Other Dynamic Events in Earth History* (Verso; Revised edition, 1998).

실행위원회 개최

7월 2일 (토) 오전 7시30분부터 11시까지 역삼동 형지빌딩 지하1층 지혜홀에서 2~4분기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실행위원회에서는 회원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추진과 재정문제 대책안 검토, 학회와 세계관 운동의 재정통합 관리, 임원수련회 개최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헌신해 주신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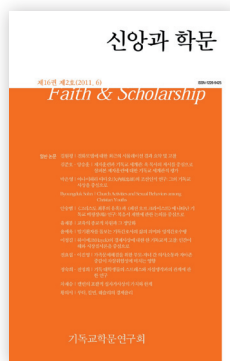
연구재단 등재지 **신앙과 학문** 투고모집 및 신간안내

신앙과 학문 16권 2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학문의 각 영역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연구한 내용들을 널리 소개하기 위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투고 논문은 학회 사무국에서 상시 접수하며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연 4회 발간되는 발행일에 맞춰 게재됩니다. 관심있는 학자들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16권 3호 투고접수: 8월 13일 (9월 30일 발행)

16권 4호 투고접수: 11월 12일 (12월 31일 발행)



제16권 2호 목차안내

길원평 | 진화모달에 대한 최근의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 및 고찰

김준호 · 양승훈 | 제자훈련과 기독교 세계관

박은영 | 아이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의 조선인식 연구

Byoungduk Sohn | Church Attitudes and Sexual Behaviors among

Christian Youths

안승범 |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타난

기독교 비평장(場) 연구

유재봉 | 교육의 종교적 차원과 그 정당화

윤매옥 | 말기환자를 돌보는 기독교인사의 삶의 의미와 영적간호수행

이정길 | 하이에크(Hayek)의 경제사상에 대한 한 기독교적 고찰

전요섭 · 이진영 | 가족문제해결을 위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

존중감이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정숙희 · 전명희 | 기독교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차재승 | 칼빈의 포괄적 십자가사상의 가치와 한계

황익서 | 루터 칼빈 웨슬리의 경제윤리



Samsung GALAXY S II

4.3 SUPER AMOLED PLUS

MOTION UI

DUAL CORE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임원수련회에 초대합니다

2010년에는 통합 1주년 축하 임원가족수련회로 대구에서 임원과 가족들이 함께 즐기며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년에는 임원수련회(가족제외)로 모여 통합 이후 현황을 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함께 논의하며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11년 8월 19일(금) 10:30 ~ 8월 20일(토) 12:00 <1박 2일>

장 소 : 패션그룹형지 여주연수원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60-21번지)

대 상 : 세계관동역회 이사, 세계관운동 / 학회 / VIEW / 출판국 임원 전원

문 의 : 사무국(02-754-8004), 사무국장(010-8456-5145)



회원가입안내

(사)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와 기독교학문연구소는 2009년 5월에 통합하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로 거듭났습니다. 기독교적 학문 연구와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뜻이 있으신 모든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정회원(일정의 회비 납부자)에게 드리는 혜택

1. 월간 세계관 전문지 <Worldview>와 학술지 <신앙과 학문>을 보내 드립니다.
2. 석사 이상 회원분들은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원으로 자동등록됩니다.
3. 홈페이지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각종 학회 및 세미나 발표논문과 칼럼, 동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4.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1회 CUP 출판사의 신간을 받아보실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6. 학문 연구에 뜻이 있으신분은 등재학술지 <신앙과 학문>에 투고할 수 있습니다.
7. 회비(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비_1 구좌 : 5,000원

일반회원 : 2구좌(1만원) 이상

학생회원 : 1구좌(5천원) 이상

임원 : 6구좌 (3만원) 이상

이사 : 20구좌(10만원) 이상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